



?? ??? ?? ????? ?? ??? ?? ??? ?????

著者	? ??
journal or publication title	周縁の文化交渉学シリーズ3 『陵墓からみた東アジア諸国の位相 朝鮮王陵とその周縁』
page range	15-26
year	2011-12-31
URL	<a href="http://hdl.handle.net/10112/6143">http://hdl.handle.net/10112/6143</a>

# 조선 왕릉에 대한 역사지리적 고찰

— 풍수적 관련 사실을 중심으로 —

## 최 원 석\*

이 글은 조선 왕릉의 분포, 입지, 배치 특징과 경관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풍수적 관련 사실을 역사지리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또 경관상에 드러나는 가시적 형태뿐만 아니라 입지 및 형성 과정을 둘러싸고 전개된 정치권력집단 간의 공간정치적 양상을 주목하였다. 이들은 조선 왕릉이 통시적인 역사적 과정의 산물이면서, 공시적으로 중국 명, 청대 능과 비교되는 문화적 요소임을 말해주고 있다.

조선 왕릉은 도성을 중심으로 과반수 이상이 20-40리 범위의 외곽에 산포되어 있고 북동쪽과 북서쪽 권역에 집중하였다. 이는 신라와 고려 왕릉보다 광역적이다. 왕릉의 입지 경향은 小盆地의 산기슭에 있어, 신라 왕릉이 평지나 구릉지, 고려 왕릉이 산지의 山腹에 위치하는 것과 다르다. 이는 풍수적 요인이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同域 내 異陵 간의 거리는 300m 내외가 많으며, 홍살문부터 능까지의 거리는 대체로 150-200m 내외이다. 조선 왕릉의 배치는 남향 범위가 절대적이었다. 능침은 緩斜面의 자연지형을 補土해 만들었고, 명당수 역시 자연지형의 물길에 순응하여 조성하였다.

조선 왕릉은 조선 왕조의 권위적이고 상징적인 경관이었다. 조선 왕릉의 입지 선정 및 遷陵 과정은 왕실 혹은 왕족, 왕과 신하, 신하 간의 정치적 세력 관계가 풍수설을 政略的 수단과 外皮로 하여 나타난 정치사적 결과물이었다.

풍수는 조선 왕릉의 조성 과정 및 경관 축조에 큰 영향을 주었다. 조선 왕릉은 풍수지리적 원리에 따라 능의 위치와 배치, 능역 경관의 조영이 이루어졌기에 풍수적 입지경관을 나타내었다. 조선 왕릉의 관리 상태는 해마다 정기적으로 왕에게 보고되었으며 국가의 법전에서 관리 내용 및 담당 역할이 규정되었다. 조정에서는 왕릉의 관리를 두고 풍수관료의 풍수적 원리고수의 입장과 儒臣의 經世的 실용 논리가 대립하면서 조정되는 양상이 빚어지기도 하였다. 한국 風水史에서 볼 때 왕릉 풍수는 조선시대적인 왕조 정치집단의 사회적 속성을 갖는 풍수 담론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조선 왕릉과 관련한 역사적 유산 중에서, 조선 왕릉의 풍수적 재현물이자 특수지도로서 산릉도가 주목되었다. 산릉도에는 능역을 구성하고 있는 경관 요소들이 회화식으로 사실적으로 표현되었을 뿐만 아니라 풍수적 山水 묘사 방식을 보이며 자세한 풍수 정보가 표기되었다.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인문학국 (HK) 교수 (wschoe@empas.com)

## 1. 서론

조선 왕릉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등재를 계기로 새로운 動力과 轉機를 맞고 있다. 근래에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조선 왕릉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져서 연구 성과가 축적되고 있지만, 역사지리 및 풍수적 조명도 빼 놓을 수 없는 연구 과제가 된다. 조선 왕릉의 분포 양상과 입지·배치의 경관 패턴, 왕릉의 조영과 관리에 미친 풍수적 영향 등에 관한 해명은 조선 왕릉을 이해하는 기본적 주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풍수는 조선 왕릉의 입지 및 조영 원리로서 큰 영향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조선왕조에서 정치적 담론으로 기능하였기에 조선 왕릉을 이해하는데 키워드가 된다.

조선 왕릉에 대한 연구 방법에 있어서, 조선 왕릉의 경관에 대한 형태적 특징에 대한 역사지리학적 분석뿐만 아니라 입지 및 조성 과정을 둘러싸고 전개된 조선조 권력집단간의 공간정치학에 대한 접근은 조선 왕릉의 경관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각이 될 수 있다. 조선 왕릉은 단순한 왕실의 무덤을 넘어서 조선시대의 왕, 왕실(왕족), 왕과 신하, 신하 간에 얽힌 정치권력적 力學 관계가 고스란히 투영된 경관 단면이기에, 공간과 정치집단 혹은 공간과 권력의 변증법적 담론은 조선 왕릉의 경관을 해석하는데 있어 중요한 관점이 되는 것이다.

조선 왕릉은 조선시대만의 특징하고 고유한 문화현상이 아니라 통시적으로는 신라와 고려에서 계승되면서 조선적 특징으로 변천된 역사적 과정의 산물이고, 공시적으로는 중국으로부터 일정한 영향을 받아서 명·청대 능의 경관과 비교할 수 있는 문화적 요소이기 때문에 시공간적 범주에 있어서 거시적인 안목도 아울러 요청된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은 논지와 연구 방법으로 이 글은 조선 왕릉의 분포·입지·배치에 나타나는 역사지리적 형태의 특징과 조선 왕릉의 경관을 조성한 내적 動因으로서의 공간정치적 배경, 그리고 풍수적 경관 조영 및 관리 사실에 관해 검토하고자 한다. 본문에서 서술되는 내용 구성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 왕릉의 분포와 입지, 배치 특징을 살핀다. 조선 왕릉의 경관 특징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 신라와 고려의 역대 왕릉 및 중국의 명·청대 왕릉과 대비될 것이다.

둘째, 조선 왕릉의 공간정치학을 고찰한다. 조성 왕릉의 조성을 둘러싸고 전개된 정치권력의 의도와 내용, 사회집단의 역학 관계를 유형화하여 분석할 것이다.

셋째, 조선 왕릉의 풍수적 관련 사실을 검토한다. 조선 왕릉의 입지, 조성, 관리 과정에 미친 풍수의 역할을 고찰하고, 조선 왕릉의 풍수적 재현물인 山陵圖를 분석한다. 아울러 조선시대 왕릉 풍수가 가지는 風水史의 담론의 위상과 의미도 논의한다.

이상과 같이 개진될 이 글의 연구 성과는 조선 왕릉에 대한 역사지리적이고 풍수적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심화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2. 조선 왕릉의 분포 및 입지 특징

조선 왕릉에서 나타나는 지리적 분포와 입지 특징은 통시적으로 신라·고려의 왕릉과, 공시적으로 중국 명·청릉과 대비를 통해 잘 드러날 수 있다.

조선 왕릉의 분포 양상을 보면, 대부분 도성을 중심으로 100리 (약 40km) 이내에 분포하고,<sup>1)</sup> 그 중에서 8-16km에 분포하는 것이 26기로 과반수를 차지하여 가장 빈도가 높다. 조선 왕릉은 몇 개를 제외하면 대체로 한양에서 4-40km에 분포하였지만 신라 왕릉은 대체로 반경 1-6km 내에 분포하였다. 따라서 도성을 중심으로 한 조선 왕릉의 공간적 분포 범위는 신라 왕릉보다 광역화된 경향을 나타낸다. 또한 한양의 도성을 중심으로 볼 때 조선 왕릉은 도성의 북동쪽과 북서쪽 권역에 32기가 집중되어 있으며, 한강 너머의 남쪽에는 7기만 존재하여 비교적 적다. 이는 왕궁에서의 지리적 접근성이 능역에 행차하거나 능역을 관리하는데 유리했기 때문이었다. 아울러 한강은 도성의 접근로를 격절하는 교통의 장애물이었기에 한강 너머는 능역 입지의 제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까닭이다. 조선 왕릉은 한양 도성을 중심으로 외곽에 분포하여 散布하여 있는데, 『조선왕조실록』에는 조선 왕릉의 이러한 분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가 있다.<sup>2)</sup>

徐相公 治登이란 자가… 말하기를 ‘그대 나라 선왕의 능침을 중국의 天壽山の 제도대로 山 하나를 점거하여 쓸 수 없는가? 각산을 分占하는 것은 萬歲를 계승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하였습니다.

조선 왕릉의 능역 경관을 보면, 홍살문부터 능까지의 거리는 대체로 150-200m 내외이며, 同域 내 異陵 간의 거리는 300m 내외가 많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500m가 넘는 것도 있다.<sup>3)</sup>

상대적으로 중국의 명·청릉은 조선 왕릉보다 도성에서 멀리 떨어져 일정한 구역에 모여 있다. 명 13릉은 자금성에서부터 직선거리로 44km가량 떨어져 있고, 淸東陵은 111km, 淸西陵은 104km나 원 거리를 두고 입지하였다. 그리고 명13릉은 북경 도성의 북쪽에, 청릉은 각각 동동남, 서편의 지정된 능역에 모여 있다. 능역 입구 (패방) 에서 능까지의 직선거리도 중국 능은 조선 왕릉에 비해 훨씬 긴데, 한 예로 청동릉의 孝陵은 3.18km에 달하고 있다.

표 1. 조선 왕릉의 분포 특징

항목	분포 특징
도성에서의 거리	100리 (약 40km) 이내. 20-40리 사이가 과반수
도성에서의 위치	북동쪽과 북서쪽이 다수
공간적 분포 범위	넓음 (신라 및 고려 왕릉 대비)
분포의 응집 정도	산포 (중국 명·청릉 대비)
同域 내 異陵 간 거리	300m 내외

1) 북한에 소재하는 厚陵과 여주의 英陵·寧陵, 영월의 莊陵은 제외한 것이다.

2) 『宣祖實錄』 28년 (1595) 6월 24일

3) 隆陵과 健陵 간 직선거리는 580m에 이른다.

조선 왕릉의 지형적인 입지 경향을 통시적으로 역대 왕릉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경주의 신라 왕릉은 평지(野; 일반평지 혹은 背山平地) 및 구릉지에, 강화의 고려 왕릉은 산지(山腹)에, 한양의 조선 왕릉은 산기슭에 위치하는 가시적인 경관 패턴을 보인다. 또한 조선 왕릉이 입지한 지형적 패턴은 일반적으로 小盆地의 국면을 나타낸다.<sup>4)</sup> 능침을 중심으로한 입지상의 상대적인 고도로 비교하자면, 신라·고려·조선 왕릉의 위치는 각각 低位·高位·中位로 대별될 수 있다. 왕릉의 지형적 입지가 역사적으로 신라시대의 평지 혹은 구릉지에서 고려와 조선시대의 산복 혹은 산기슭으로 변천하고, 小盆地의 국면 패턴을 보이는 까닭은 풍수적 요인이 왕릉의 입지에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한국 왕릉의 지형적 입지 경향 개관

항목	조선 왕릉	신라 왕릉	고려 왕릉
지형 경관	小분지의 산기슭	평지·구릉지	山地(山腹)
상대 고도	中位	低位	高位
절대 고도	150m-200m <sup>5)</sup>		
지질 특성	호상편마암/화강암 <sup>6)</sup>		

조선 왕릉의 방위상 배치를 좌향과 관련해 살펴보면, 총 49곳 중에 子坐午向(8곳)으로 가장 많고, 癸坐丁向(6곳), 壬坐丙向(5곳), 艮坐坤向(5곳), 酉坐卯向(4곳), 乙坐辛向(4곳), 甲坐庚向(3곳), 庚坐甲向(3곳), 亥坐巳向(3곳), 乾坐巽向(2곳), 卯坐酉向(2곳), 기타 辛坐乙向, 丑坐未向, 戊坐辰向, 申坐寅向이 1곳이 나타났다. 따라서 남향 범위(남, 남동, 남서)에 포함되는 午向, 丁向, 丙向, 坤向, 巳向, 未向, 巽向은 총 30곳으로서 61.2%의 비율을 차지한다. 동향 범위(동, 동남, 동북)에 포함되는 卯向, 乙向, 辰向, 甲向, 寅向은 모두 10곳으로서 20.4%를 차지하고, 서향 범위(서, 서남, 서북)에 포함되는 酉向, 庚向, 辛向은 모두 9곳으로서 18.4%를 차지한다. 북향은 한 곳도 없다. 이렇게 볼 때 조선 왕릉의 방위 배치는 대부분 남향을 선호하여 지향하였음을 알 수 있고, 다음으로 동향과 서향으로 배치하였으며, 북향은 한 곳도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북쪽으로 배치하기를 꺼렸음을 알 수 있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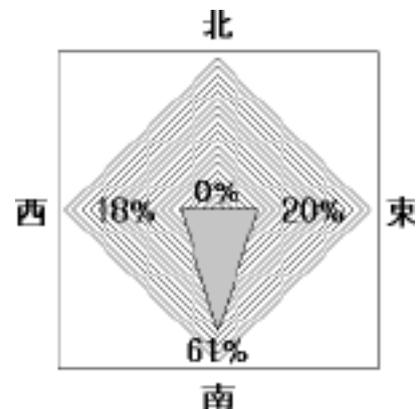


그림 1. 조선 왕릉의 좌향 배치 비율

4) 상대적으로 중국의 명·청릉은 廣域의 거대분지에 背山하여 입지하였다.

5) “조선시대 왕릉의 공간적 분포특성,” The Journal of GIS Association of Korea, Vol.14, No.3, 285.298.

6) 장은미·박경, 2006, “조선시대 왕릉의 공간적 분포특성,” The Journal of GIS Association of Korea, Vol.14, No.3, 285.289

### 3. 조선 왕릉의 공간정치학

조선 왕릉의 분포·입지·배치·경관에 나타나는 가시적 형태는 그것을 형성케 한 정치사회적인 내적 요인과 동력이 공간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조선 왕릉은 왕조의 사회적 경관이라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에 조성을 둘러싸고 전개된 정치적인 권력 의도와 집단의 역학 관계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권력 집단이 어떻게 장소 입지와 경관 구성을 통해서 그들의 정치적 의도를 달성하고자 하였는지에 대한 공간정치학적 관점은 조선 왕릉을 접근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정치적 권력 집단은 장소 입지와 경관 구성을 통해 정치적 통치를 자연스럽게 수행하거나 정체성과 권위를 강화하는 공간적인 정치 전략을 세우며, 조선시대에 있어 왕릉의 축조는 그 기술적 형태와 방식의 하나로서 왕조에서 정치사회적인 기능을 하였다. 왕릉은 왕실의 권위를 드러내는 상징적 경관으로서, 왕권과 신권의 각축장이었던 조선 왕조의 政治力學的 구조상 왕권이 주체가 된 왕릉의 권위적 조성은 신권을 누르는 강력한 왕권 강화책이기도 했던 것이다.<sup>7)</sup> 조선 왕실에서 왕릉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빈번한 실례로 나타났듯이, 왕릉지는 주로 신하들의 묘역 중 뛰어난 곳에 선정되는 경우가 많았기에, 왕권이 강했을 때는 신하의 묘역을 강점하였으며, 이것은 왕권을 과시하고 신권을 지배·통제하기에 충분하였다.

특히 왕릉 터의 擇地 및 遷陵 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해보면 그 속에는 정치적 이유와 권력의 의도가 깊숙이 개입되어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다. 왕릉의 입지(위치)와 형태, 시설물 등은 왕권과 신권 간의 정치역학적 함수 관계에 따라 좌우되었으니, 조선 중기에 왕권이 약화되자 왕릉의 규모나 시설물도 축소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조선조 정치사회에서 왕릉의 위상과 영향력은 지방행정중심지(읍치)의 이동도 야기 시킬 정도로 컸던 때도 있었으니, 정조대에 용릉이 화성의 자리에 선택됨으로 인해 읍치의 이동이 빚어졌고 신도시 화성이 건설되었던 것이다.

조선 왕릉이 수행했던 정치적 기능은 왕권의 강화를 위한 권위적이고 상징적인 공간으로서의 역할만이 아니었다. 조선 왕릉의 조성을 둘러싸고 전개된 양상과 관계에는 왕과 왕실, 왕과 신하, 신하 들이라는 집단 간의 사회적 역학과 정치적 계산이 복잡하게 맞물려 있는 것이다. 조선 왕릉의 정치사를 통시적으로 개관하여 볼 때, 조선 왕릉의 입지 및 조성 과정에 반영된 정치역학적 관계의 양상은, 왕권 강화, 왕실에서의 정통성과 주도권 획득, 왕권과 신권의 권력 경합, 權臣 간의 세력 확대 등으로 다양한 측면으로 전개되어 나타났다. 그 내용을 유형화하면, 왕권의 신권에 대한 지배·통제 형, 왕실 내부의 정치적 쟁투 및 정통성 확보 형, 왕권과 신권의 경쟁 형, 臣僚들 간의 주도권 다툼 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조선 왕릉의 擇地 및 遷陵 과정에 결정적으로 개입하였던 풍수 요인마저도 해당 정치집단의 의도와 담론의 영향권 내에 있었고, 정치적 역학 관계에 의해 지배받았다. 조선 왕릉의 입지적 경관은 왕, 왕실 혹은 왕족, 왕과 신하, 신하 간의 정치적 세력 관계가 풍수를 政略的 수단이나 외피로 하여 나타난 것이었다. 조선조의 정치적 역학 관계에 의해 아우트라인이 정해진 뒤에 구체적인 장소

7) 장영훈, 2000, 왕릉 풍수와 조선의 역사, 대원사, 98.

선택에서 풍수 요인이 작용하였으니, 정치가 주 입지요인으로, 풍수가 부 입지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조선 왕릉은 풍수적 입지경관을 보이지만 풍수가 왕릉지 선택에 있어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는 않았던 것이다.

#### 4. 조선 왕릉과 풍수

##### 1) 조선 왕릉의 조성 과정과 풍수

한국의 풍수사에서 볼 때 왕릉풍수는 조선시대 풍수의 역사적 특징이자 정치사회적 담론이었다. 조선시대에 왕릉은 풍수지리적 조건을 엄밀히 판단하여 능 자리가 결정되었으며, 입지가 결정된 장소에서 능의 위치와 배치, 능역 경관의 조영 및 사후 관리는 풍수 원리에 입각하여 이루어졌다. 특히 풍수적 영향으로 인하여 능의 明堂地 입지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기에 능 자리의 결정에는 다수의 전문 인력과 입지 평가 및 검토 과정이 수반되었고, 왕이 직접 나서는 경우도 허다하였다.

조선시대에 왕릉의 축조 과정은 山陵都監에서 주관하였다. 조선 왕조는 왕이 승하하면 5개월 만에 장사를 지냈는데, 忌日 전에 예조의 堂上官과 風水學提調가 書雲觀의 관원을 거느리고 장사 지낼 곳을 가렸다. 예비적으로 陵地가 정해지면 의정부의 堂上官이 다시 살펴보고 啓聞하고 왕의 允許를 얻어 능역을 결정하였으며, 결정된 능지는 擇日을 정하여 塋域을 조성하였다.<sup>8)</sup>

왕릉의 擇地 및 役事가 진행되는 주요 풍수적 과정을 태조의 건원릉을 사례로 『조선왕조실록』에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태종 8년(1408) 5월 24일에 태조가 昇遐하자 議政府에서 殯殿·國葬·造墓·齋의 4都監과 13色을 설치하였다. 태종 8년(1408) 6월 12일에 領議政府事 河崙 등을 보내어 山陵 자리를 보게 하였는데, 땅이 적당하지 않자 다른 곳을 택하게 하였다. 태종 8년(1408) 6월 28일에는 마침내 山陵을 楊州의 儉巖에 정하였다. 태종 8년(1408) 7월 5일에 여러 道의 軍丁을 징발하여 山陵의 役事に 赴役하게 하였고, 능자리가 완성되자 사후 5개월째 되던 태종 8년(1408) 9월 9일 태조의 영구를 받들어 健元陵에 장사지냈다.

표3. 『태조실록』의 건원릉 조영 과정 기사

날짜	조선왕조실록의 기록
태종 8년(1408) 5월 24일	태조가 승하하였다. 政府에서 殯殿·國葬·造墓·齋·都監과 喪服·玉冊·服玩·棺槨·祭器·柳車·法威儀·喪帷小造·山所·靈飯·儀仗·墓所鋪陳·返魂 등 13色을 설치하였다.
6월 12일	領議政府事 河崙 등을 보내어 山陵 자리를 보게 하였다. 判漢城府事 劉早雨·書雲正 李陽達 등이 아뢰기를, “신 등이 산릉 자리를 잡으려고 原平의 예전 蓬城에 이르렀사운데, 吉地를 얻었습니다.” 하였다. 이에 하륜 등을 보내 가서 보게 하였는데, 하륜이 돌아와서 아뢰기를, “이양달 등이 본 蓬城의 땅은 쓸 수 없고, 海豐의 幸州에 땅이 있사운데 地理의 법에 조금 합당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다시 다른 곳을 택하라.”

8) 『國朝五禮儀』 卷7, 凶禮, 治葬. 『世宗實錄』, 五禮, 凶禮儀式, 治葬.

6월 28일	山陵을 楊州의 儉巖에 정하였다. 처음에 領議政府事 河崙 등이 다시 劉旱雨·李陽達·李良 등을 거느리고 楊州의 능자리를 보는데, 檢校參贊議政府事 金仁貴가 하륜 등을 보고 말하기를, “내가 사는 儉巖에 吉地가 있다.” 하였다. 하운 등이 가서 보니 과연 좋았다. 造墓都監提調 朴子靑이 工匠을 거느리고 役事를 시작하였다.
7월 5일	여러 道의 軍丁을 징발하여 山陵의 役事에 赴役하게 하였는데, 충청도에서 3천 5백 명, 豐海道에서 2천 명, 강원도에서 5백 명이었다. 7월 그믐날을 期하여 역사를 시작하게 하였다.
9월 9일	영구를 받들어 건원릉에 장사지내다

## 2) 조선 왕릉의 경관과 풍수

조선 왕릉은 풍수적 원리에 의거하여 입지와 배치가 정해졌으므로 풍수적 경관을 나타낸다. 조선 왕릉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풍수적 입지 경관의 모형은 背山臨水의 산기슭에 주위 사방으로 산과 구릉지가 에워싸는 小盆地 형국이다. 조선 왕릉에 있어 능침과 부대 시설물의 배치는 대체로 능 뒤의 主山과 앞에 마주하는 案山의 軸線을 기준으로 삼고, 자연적인 지형·지세에 맞추어 이루어졌다. 조선 왕릉의 능역 경관에서 풍수적 보완(裨補)이 필요한 경우는 補土하거나 池塘, 樹林 등을 조성하기도 하였다.<sup>9)</sup>

상대적으로 조선 왕릉과 대비될 수 있는 중국 명·청대의 능도 분명한 풍수적 입지와 배치 경관을 보이는 것은 매한가지이다. 다만, 입지상의 지형 규모가 광역적이어서 조선 왕릉과는 차이를 보이고, 배치상에 있어서도 명, 청대의 능은 좌우 대칭을 이루는 직선축 상에 능침과 시설물을 배치하였다. 능침의 조성 형태를 보면, 조선 왕릉은 구릉지 緩斜面的 자연지형을 이용하여 補土했지만 중국의 능은 대개가 평지에 인공적으로 半球形의 능침을 조성한다는 점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陵域에서 요청되는 풍수적인 필수 경관으로서의 물길인 明堂水 역시 한국은 자연지형에 순응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중국은 의도적으로 물길을 屈曲시켜 만듦으로써 풍수적 경관상을 강조한 모습이 역력하다.

조선 왕릉에서 보이는 풍수 경관 요소의 한 사례로서 못(池塘)에 관해 살펴보자. 「康陵誌」에 “조선시대 능 앞에는 반드시 연지가 있었다.” 고 하여 연지가 능역의 일반적 경관요소였음을 알 수 있고, 『春官通考』(1788)에는 조선 왕릉에 20개의 연지가 있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sup>10)</sup> 연지는 능침의 좌우측 명당수가 合水하는 水口部에 조성하며, 대체로 능역의 진입공간에 해당하는 재실과 홍살문 앞에 위치한다. 능역 전면이 넓고 허한 경우에 풍수적 비보차원에서 조성됨과 아울러 휴식 공간, 防火水 등의 실용적인 기능도 하였다. 현존하는 남한의 연지는 9개소이다.<sup>11)</sup>

9) Lee, Chang-Hwan·Jo, Woon-yuen, 2007, The Circumstances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of Royal Tomb Sites in the Joseon Dynasty,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vol 5, 72.

10) 건원릉, 승릉, 장릉, 경릉, 희릉, 효릉, 익릉, 英陵, 寧陵, 장릉, 의릉, 정릉, 태릉, 강릉, 貞陵, 懿陵, 장릉, 제릉, 후릉 등이다.

11) 김흥년, 2009, “朝鮮王陵 連池의 立地 및 空間構成에 관한 研究,” 고려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



그림 2. 장릉 산릉도에 재현된 풍수경관.  
『월중도』(18세기 이후)



그림 3. 동구릉의 풍수경관과 蓮池.  
『해동지도』(18세기 중엽)

### 3) 조선 왕릉의 관리와 풍수

조선 왕조에서 왕릉의 관리 상태는 해마다 왕에게 보고되었다. 특히 풍수적으로 중요한 곳으로서 主山의 來脈에 깔아놓은 薄石이 파인 곳이나 훼손된 곳이 있으면 觀察使가 왕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조선 초기의 법전으로서 『經國大典』(1471) 奉審條에는 풍수와 관련된 왕릉의 관리규정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다.

山陵은 해마다 本曹가 提調와 함께 奉審하고 왕에게 보고한다. 지방은 觀察使가 왕·왕비·왕세자의 胎室과 宗廟 各室, 王后 부모의 墓所까지 모두 살펴본다.

여러 山陵의 主山·來脈에 얹은 돌을 깔아 놓은 곳이 혹 오래되거나 빗물로 헐어져서 파인 곳이 있으면 觀察使가 모두 살펴보고 왕에게 아뢰다.

歷代始祖 및 高麗 太祖 이하 4位 顯宗·文宗·忠敬王의 陵寢은 소재지의 守令이 매년 돌아보고 또 밭을 일구거나 나무하는 것을 금한다.

조선 후기의 英祖 때 편찬된 『續大典』에서는 왕릉의 奉審 규정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정비되었다. 능 위의 莎草와 石物에 탈이 있거나 失火하면 政府 大臣, 禮曹의 堂上官과 郎官, 觀象監과 繕工監提調와 함께 相地官과 畫員이 함께 살펴도록 하고 비가 새어 틈이 생기면 議政을 보내 修改하였다.<sup>12)</sup> 영조와 정조를 전후한 시기에는 능 자체의 修改 못지않게 능역 주변의 산림 관리도 중요하게 취급되었다.<sup>13)</sup> 풍수 담당 관료의 능 관리 역할의 규정에 대해 『書雲觀誌』(1818)에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12) 『大典會通』 권 3, 禮典 奉審, 중추원본 363.

13) 『春官通考』 권 17, 吉禮 陵寢 健元陵. 正祖는 현릉원과 각 능의 禁松 등 산림 보호에 힘썼다.

各陵의 封陵 위의 莎草·石物에 탈이 있는 곳과 능 위에 失火가 있는 곳에는 政府와 本監의 提調·相地官이 나아가 奉審한다. 修改할 때도 같다.

陵幸 때의 相地官 1 원은 教授·訓導를 번갈아 차출한다.

國陵으로 封標한 곳과 胎峯으로 置簿한 곳을 看審할 때의 相地官과 禮葬할 때의 加定官은 교수·훈도와 이 벼슬을 지낸 자를 차출하되, 加定官은 吏曹에 移文하고 歸厚署에 啓下한다.

조선조에서는 왕릉의 관리를 두고 사상적으로는 풍수와 유교, 사회적으로는 風水官僚의 풍수적 원리원칙과 儒臣의 經世의 실용주의가 서로 대립·갈등하고, 절충·조정되는 양상을 빚기도 하였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세종 대에 시작하여 문종과 세조에까지 지속된, 헌릉의 蜂腰에 해당하는 길의 통행 문제를 둘러싸고 전개된 논쟁이다. 이것은 헌릉에 통행로의 실용적 기능을 우선시하여 풍수적 要處라도 길을 뚫어 편의를 우선시할 것인가, 아니면 풍수적 의미를 최우선하여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도로의 통행을 막을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었다. 논쟁의 진행 과정에서, 풍수론에 의거하여 길을 막자는 원칙론과, 길을 막을 필요는 없다는 실용론과, 길을 막지 않되 地脈 보호를 위해서 薄石을 깔자는 절충론이 나왔고, 이에 따라 길을 막기도 하였고, 길을 열어두기도 하였으며, 박석을 깔기도 하였다. 그런데 지배적인 논의의 흐름은 왕릉에 미치는 풍수적 영향을 수용하는 틀 내에서 결정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실용론에 의한 편의보다는 풍수론에 의한 원칙이 의사 결정과정에서 비중 있게 작용된 것이다.<sup>14)</sup>

#### 4) 조선 왕릉의 풍수적 재현, 산릉도

조선시대 왕릉의 조성, 배치, 형태 등에 관련된 주요한 사실은 山陵圖에 상세하게 표기되고 재현되었다. 읍 지도인 郡縣圖에는 왕릉 입지의 지형적 형세와 위치가 대략적으로 표기되었지만, 산릉도에는 능역을 구성하고 있는 경관 요소들이 회화식으로 사실적으로 표현되었을 뿐만 아니라 풍수적 입지 조건에 관한 풍수 형세의 山水 묘사 방식과 함께 자세한 풍수 정보가 표기되었다. 산릉도는 조선 왕릉을 그림으로 재현한 특수 지도로서 주목된다.

조선 후기에 작성된 산릉도의 사례를 통해 풍수적 재현 상황을 살펴보기로 하자. 1808년에서 1840년 사이에 제작된 智陵圖(그림 6)에는 능을 중심으로 산세가 에워싸는 모습이 잘 표현되어 있다. 능 아래에는 文石人과 武石人 등의 석물을 그렸고, 丁字閣과 水刺間, 紅箭門, 碑閣, 齋室도 자세하게 그렸다. 능의 坐向(壬坐丙向)이 축선으로 그려져 있고, 24방위가 표기되어 있다. 그리고 내용이 왼쪽으로 돈다(來龍左旋)는 풍수적 기제도 하였다. 丁字閣으로부터 주산 봉우리까지의 거리 및 외청룡과 외백호가 서로 마주치는 곳까지의 거리 정보도 기입하였다. 그리고 純陵圖(그림 7)에는 능역의 시설물도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4) 세종 12년(1430) 7월 을사. 문종 1년(1451) 10월 신사. 세조 10년 3월 갑자, 세조 10년 4월 갑진.



그림 4. 海東地圖 (楊州牧,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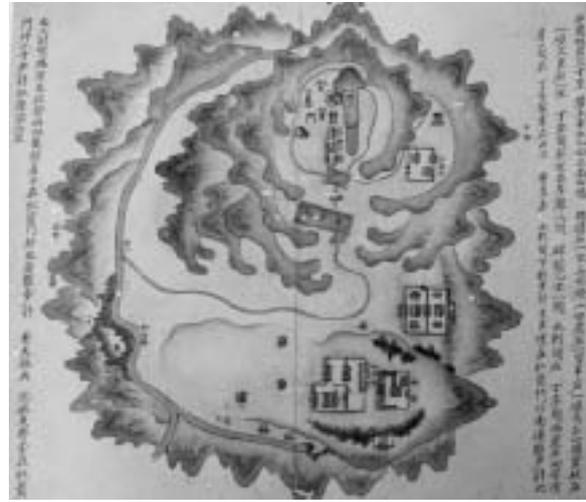


그림 5. 영월 莊陵 산릉도 (越中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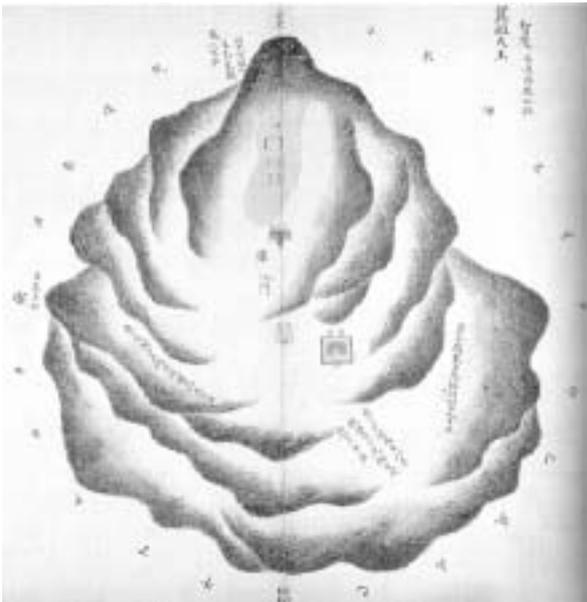


그림 6. 智陵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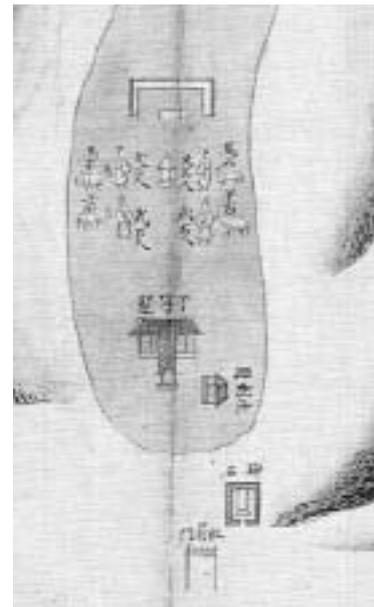


그림 7. 純陵圖 (부분)

### 5) 조선시대의 왕릉 풍수 담론

왕릉의 풍수적 입지 및 경관은 조선시대에 와서야 陰宅風水論의 원칙에 따라서 격식을 갖추어 이루어졌다. 한국에서 풍수가 왕릉 입지의 주요인으로 등장하는 역사적 기원은 문헌에 의하면 늦어도 8세기 말이다. 「大崇福寺碑文」에 의하면 798년에 신라 왕실에서 경주 인근의 鶴寺라는 절터가 풍수가 좋아 왕릉지로 조성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등장한다.

고려시대에 이어지면서 풍수는 왕릉의 입지 및 경관구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조선왕조에서 벌어지는 양상과 같이 왕릉 풍수의 비중과 위상은 현격히 낮았다. 고려시대의 정치사회

를 지배했던 주요한 풍수 담론은 수도의 延基나 궁궐의 조성, 자연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裨補的 환경관리, 사찰 배치 등과 같은 風水圖讖 및 비보풍수에 의거한 陽宅(陽基) 풍수에 있었지 왕릉과 같은 陰宅 풍수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고려시대에 풍수를 전담하는 제도권의 기구로서 書雲觀이 있었지만 왕릉의 조성이나 관리를 했다는 역사적 기록을 찾아보기 힘들며, 고려 조정에서 取才했던 풍수 시험 과목 역시 陰宅風水書라고 확증할 수 없다.

따라서 왕권에서 왕릉을 비롯한 음택 풍수를 정치적 권위를 높이는 상징적 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것은 유교적 효 관념과 관련된 음택풍수적 이데올로기 및 사회담론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었던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에 걸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시대에는 觀象監에서 왕릉의 풍수를 전담하여 처리하였고, 풍수의 과거과목이 모두 중국의 정통적인 음택풍수서인 점, 그리고 사회계층적으로 풍수담론이 널리 확산되어 있었다는 점도 왕권에서 왕조의 권위를 높이는 수단으로 풍수를 활용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요컨대 왕릉 풍수가 확립된 것은 비로소 조선시대에 이르러서야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풍수사에서 왕릉 풍수는 조선시대적인 왕조 정치집단의 사회적 속성을 갖는 풍수담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5. 결론

이 글은 조선 왕릉의 분포·입지·배치 특징과 경관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풍수적 관련 사실을 역사지리적으로 검토한 것이며, 경관상에 드러나는 가시적 형태뿐만 아니라 입지 및 형성 과정을 둘러싸고 전개된 정치권력집단 간의 공간정치적 양상을 주목하였다. 아울러 조선 왕릉은 통시적인 역사적 과정의 산물이면서, 공시적으로 중국 명·대 능과 비교되는 문화적 요소로서 살펴보았다.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 왕릉은 도성을 중심으로 과반수 이상이 20-40리 범위의 외곽에 산포되어 있고 북동쪽과 북서쪽 권역에 집중하였다. 조선 왕릉의 분포 범위는 신라와 고려 왕릉보다 광역적이다. 조선 왕릉의 입지 경향은 小盆地의 산기슭에 있어, 신라 왕릉이 평지나 구릉지, 고려 왕릉이 산지의 山腹에 위치하는 것과 다르다. 지형적 입지가 평지에서 산복과 산기슭으로 바뀌고 小盆地의 국면 패턴을 보이는 까닭은 풍수적 요인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同域 내 異陵 간의 거리는 300m 내외가 많으며, 홍살문부터 능까지의 거리는 대체로 150-200m 내외이다. 조선 왕릉의 배치는 남향 범위가 절대적이었다. 능침은 緩斜面的 자연지형을 補土해 만들었고, 명당수 역시 자연지형의 물길에 순응하여 조성하였다.

한편, 중국의 明陵은 직선거리로 40km 이상, 淸陵은 100km 이상의 원거리를 두고 입지하였으며, 명릉은 도성의 북쪽, 청릉은 동동남과 서편의 지정된 능역에 모여 있다. 능역 입구(패방)에서 능침에까지 이르는 길도 청 孝陵에서 약 10리(4km)에 달할 정도로 길다. 중국 명·청대의 능은 입지 규모가 광역적이지만 분명한 풍수적 입지와 경관을 나타낸다. 명·청대의 능침은 좌우 대칭을 이루는 직선 축 상에 능침과 시설물을 배치하였기에 조선 왕릉과 같이 자연지형에 맞춘 조영의식과는 차이를 보인다. 능침의 자연지형 이용에 있어서도 중국의 능은 평지에 인공적으로 반구형의 능침을

조성하였다. 물길 역시 의도적으로 屈曲시켜 풍수적 경관으로서의 모습을 강조하였다.

조선 왕릉은 조선 왕조의 권위적이고 상징적인 경관이었다. 조선 왕릉의 입지 선정 및 遷陵 과정은 왕실 혹은 왕족, 왕과 신하, 신하 간의 정치적 세력 관계가 풍수설을 政略的 수단과 外皮로 하여 나타난 정치사적 결과물이었다. 조선 왕릉의 조성과정에서 나타난 권력 관계의 내용을 유형화해 보면, 왕권의 신권에 대한 지배·통제 형, 왕실 내부의 정치적 쟁투 및 정통성 확보 형, 왕권과 신권의 경쟁 형, 臣僚들 간의 주도권 다툼형 등으로 분류될 수 있었다.

풍수는 조선 왕릉의 조성 과정 및 경관 축조에 큰 영향을 주었다. 조선 왕릉은 풍수지리적 원리에 따라 능의 위치와 배치, 능역 경관의 조영이 이루어졌기에 풍수적 입지경관을 나타내었다. 조선 왕릉의 관리 상태는 해마다 정기적으로 왕에게 보고되었으며 국가의 법전에서 관리 내용 및 담당 역할이 규정되었다. 조정에서는 왕릉의 관리를 두고 풍수관료의 풍수적 원리고수의 입장과 儒臣의 經世的 실용 논리가 대립하면서 조정되는 양상이 빚어지기도 하였다.

조선 왕릉과 관련한 역사적 유산 중에서, 조선 왕릉의 풍수적 재현물이자 특수지도로서 산릉도가 주목되었다. 산릉도에는 능역을 구성하고 있는 경관 요소들이 회화식으로 사실적으로 표현되었을 뿐만 아니라 풍수적 山水 묘사 방식을 보이며 자세한 풍수 정보가 표기되었다.

한국의 역사에서 왕릉의 풍수적 입지 및 경관 조성은 조선시대에 와서야 풍수론의 원칙에 따라서 격식을 갖추어 이루어졌다. 조선 왕조의 정치 집단은 왕릉을 정치적 권위를 높이는 상징적 수단으로 활용하였고, 풍수는 왕조의 정치집단 사이에 공간 이데올로기적 담론으로 기능하였다. 한국 風水史에서 볼 때 왕릉 풍수는 조선시대적인 왕조 정치집단의 사회적 속성을 갖는 풍수 담론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